<한국레즈비언상담소 2006년 4월~2007년 3월까지 1년 상담통계>

이 자료는 한국레즈비언상담소가 지난 2006년 4월부터 2007년 3월까지의 일년치 상담 카드를 토대로 통계를 낸 뒤 그 결과를 분석한 내용입니다. 본 상담소는 상담 요청을 해 오는 내담자들에게 어떠한 신상 정보도 의무적으로 기입하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담자의 성별, 성정체성, 나이, 혼인 여부 등의 항목에서 내담 내용 자체를 통해 파악되거나 내담자가 스스로 밝힌 정보를 토대로 체크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알 수 없음' 으로 집계되는 수치가 상당하다는 점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통계분석에 덧붙이는 내용은 지난 일 년 간 상담원들이 상담 과정에서 특별히 주목했던 상담 내용 세 가지- Ⅰ. 유아/어린이 성폭력 피해와 레즈비언 경험 Ⅱ. 커뮤니티 내 아우팅 매개 범죄 Ⅲ. 가족구성권-와 관련된 사례, 분석, 과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첨부자료: 2006년 상담카드, 2007년 상담카드]

한국레즈비언상담소 상담팀

홈페에지 lsangdam.org

메일 사무 lsangdam@lsangdam.org 상담 lsangdam@hanmaill.net

전화 사무 02-703-3542 상담 02-718-3542

팩스 02-703-3543

목 차

상담 통계 분석 3

<표Ⅰ> 상담 방법 3
<표Ⅱ> 내담자 성별 4
<표Ⅲ> 내담자 성정체성 4
<표Ⅳ> 내담자 나이 5
<표Ⅴ> 내담자 혼인여부 6
<표Ⅶ> 상담 내용 7

상담을 통해 본 레즈비언 권리 문제 10

Ⅰ. 유아/어린이 성폭력 피해와 레즈비언 경험 10
Ⅱ. 커뮤니티 내 아우팅 매개 범죄 13
Ⅲ. 가족구성권 16

2006 - 2007, 한국레즈비언상담소 상담 통계 표 18

[첨부자료] 2006, 2007 상담카드 22

상담 통계 분석

<표 Ⅰ> 상담 방법

<표 Ⅰ-1> 2006년도 상담 방법

상담 방법	명	(%)
전화	67	14.05
이메일	159	33.33
게시판	244	51.15
내방	4	0.84
기타	3	0.63
계	477	100

<표 Ⅰ-2> 2007년도 상담 방법

상담 방법	명	(%)
전화	21	14.79
이메일	33	23.24
게시판	87	61.27
내방	1	0.70
기타	0	0
계	142	100

[통계 설명]

2006년 4월부터 2007년 3월까지 약 1년 간 한국레즈비언상담소에서 진행된 상담사례는 각각 477건(9개월간), 142건(3개월간)으로 총 619건이다. 이중 게시판 상담이 차지하는 비중이 56.2%(244/477, 87/142)로 가장 높고, 이메일 상담이 28.3%(159/477, 33/142)로 나타났다. 전화 상담 14.4%(67/477, 21/142)와 내방 및 기타상담 1.1%(7/477, 1/142)에 비해 인터넷 상의 상담 비중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분석 평가]

위의 통계를 보면, 전화 상담과 내방 상담의 비중보다 인터넷 상의 상담 비중이 현저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내담자 자신을 상담원에게 드러내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익명성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인터넷으로 상담을 요청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동성애 혐오와 같은 사회적인 편견으로 인해 내담자는 상담원에게조차 자신을 드러내기를 꺼린다. 이것은 2006년 상담통계분석에서도 알 수 있는데, 내담자들이 느끼고 있는 현실은 1년 전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데 인터넷 상의 상담의 한계는 전화 혹은 내방 상담과 달리 내담자와 상담원 간의 즉각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데 있다. 또한 인터넷으로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일차적인 상담으로 끝날지도 모른다.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상담원들은 게시판이나 이메일 상담을 할 때에 최대한 상세하고 치밀하게 상담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표Ⅱ> 내담자 성별

<표Ⅱ-1> 2006년도 내담자 성별

성별	명	(%)
여	435	91.19
남	31	6.50
F to M	1	0.21
M to F	1	0.21
알 수 없음	9	1.89
계	477	100

<표Ⅱ-2> 2007년도 내담자 성별

성별	명	(%)
여	133	93.67
남	7	4.93
F to M	1	0.70
M to F	0	0
알 수 없음	1	0.70
계	142	100

[통계 설명]

내담자의 성별은 여성이 92.4%, 남성이 5.7%였고, F to M(여성->남성) 트랜스젠더가 2명(0.5%), M to F(남성->여성) 트랜스젠더가 1명(0.1%), 성별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1.3%로 나타났다.

<표Ⅲ> 내담자 성정체성

<표Ⅲ-1> 2006년도 내담자 성정체성

성정체성	명	(%)
레즈비언	219	45.91
게이	3	0.63
양성애자	16	3.35
이성애자	31	6.50
고민 중	166	34.80
알 수 없음	42	8.81
계	477	100

<표Ⅲ-2> 2007년도 내담자 성정체성

성정체성	명	(%)
레즈비언	70	49.30
게이	0	0
양성애자	1	0.70
이성애자	11	7.75
고민 중	45	31.69
알 수 없음	15	10.56
계	142	100

[통계 설명]

내담자의 성정체성은 전체 내담자 619명 중에 레즈비언이 289명으로 46.7%였으며 성정체성에 대해 고민 중인 사람이 211명(34.1%)으로 나타났다. 이성애자는 42명(7%), 양성애자 17명(3%), 게이가 3명(0.4%)이었다. 성정체성을 알 수 없는 경우인 57명을 제외한 562명을 기준으로 내담자의 성정체성 비율을 보면 레즈비언이 51.4%, 성정체성에 대해 고민 중인 사람이 34.1%를 차지한다.

[분석 평가]

상담을 요청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레즈비언이었다. 하지만 위의 내용을 보면 자신이 레즈비언이라고 확신하지 못하는 혹은 인정하고 싶지 않아하는 등 자신의 성정체성이 무엇인지 고민 중인 사람들도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자신의 성정체성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IV> 내담자 나이

<표IV-1> 2006년도 내담자 나이

나이	명	(%)
10대	115	24.11
20대	113	23.69
30대	42	8.81
4-50대	19	3.98
알 수 없음	188	39.41
계	477	100

<표IV-2> 2007년도 내담자 나이

나이	명	(%)
10대	48	33.80
20대	51	35.92
30대	8	5.63
4-50대	11	7.75
알 수 없음	24	16.90
계	142	100

[통계 설명]

내담자의 연령대는 나이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인 212명을 제외한 407명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20대가 164명으로 40.3%, 10대가 163명으로 40%로 나타난다. 즉 10대와 20대가 내담자의 대부분(80.3%)을 차지한다. 그리고 30대가 50명(12.3%), 40~50대가 30명(7.4%)으로 나타났다.

[분석 평가]

내담자의 연령대가 주로 10대와 20대에 분포하고 있다. 이것은 비교적 10대와 20대가 정보의 접근성이 높아 상담소를 찾아오기 쉽기 때문이다.

한편 30대와 4,50대의 수치가 결코 적지 않다는 점도 주목을 요한다. 자신의 성정체성에 대해 고민하고 깨달아가는 시기가 주로 10대와 20대이나, 레즈비언 경험을 10대의 '치기 어린' '한 때' 경험으로 볼 수는 없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과 관련된 성 정체성 고민은 나이와 관계없이 존재한다. 한국사회에서 동성애자의 존재가 가시화되기 시작한 것이 얼마 되지 않은 만큼, 30대 이상의 상당수 내담자들이 자신의 성정체성을 억압하고 살아왔거나, 깨닫지 못한 경우가 많다.

<표 V> 내담자 혼인여부

<표 V-1> 2006년도 내담자 혼인여부

혼인여부	명	(%)
비혼	275	57.65
기혼	27	5.66
이혼	1	0.21
알 수 없음	174	36.48
계	477	100

<표 V-2> 2007년도 내담자 혼인여부

혼인여부	명	(%)
비혼	109	76.76
기혼	13	9.16
이혼	2	1.40
알 수 없음	18	12.68
계	142	100

[통계 설명]

내담자의 혼인 여부에 대한 통계를 보면, 혼인 여부를 알 수 없는 192명의 경우를 제외한 427명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비혼인 경우가 384명으로 90%였으며, 기혼이거나 이혼을 한 상태인 내담자가 43명으로 10%를 차지했다.

[분석 평가]

제도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만 상담 요청을 하는 것은 아니다. 기혼 여성이나 이혼한 내담자에게도 상담이 들어온다. 이들은 높은 비율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성애주의가 만연해 있는 사회에서 많은 기혼자 혹은 이혼한 사람들이 자신의 성정체성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결혼 후 자신이 레즈비언임을 알고 고민을 시작하게 된 내담자, 레즈비언이지만 결혼 압력에 못 이겨 이성과 결혼을 했지만 힘들어하는 내담자 혹은 이런 사례들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거나 이혼을 하는 내담자 등 많은 사례들이 있다.

<표Ⅶ> 상담 내용

<표Ⅶ-1> 2006년도 상담 내용 *복수표기

상담 내용	명	(%)	소분류	명	(%)
성정체성	146	30.61			
짝사랑	68	14.26			
고백	14	2.94			
교제	112	23.90			
이별	55	11.53			
커밍아웃	11	2.31			
친구관계	44	9.22			
가족관계	47	9.85			
성	32	6.71			
우울증	14	2.94			
섭십장애	2	0.40			
종교	5	1.05	기독교	4	80.00
			기타	1	20.00
스토킹	4	0.84			
성폭력	14	2.94	동성 간 성폭력	3	21.43
			이성 간 성폭력	11	78.57
교제관계 내 폭력	13	2.73	가정 폭력	5	38.46
			데이트 폭력	8	61.54
기존 가족 내 폭력	8	1,68			
아우팅	15	3.14	고의적 아우팅	5	33.33
			무고의적 아우팅	1	36.67
			기타	9	60.00
아우팅 매개범죄	13	2.73	협박	10	76.93
			폭행	1	6.67
			금품갈취	1	6.67
			기타	1	6.67
커뮤니티 내 폭력	8	1.68	사기	2	25.0
			명예훼손	2	25.0
			기타	4	50.0
혐오범죄	10	2.10	폭언	1	10.0
			폭행	1	10.0
			따돌림	5	50.0
			괴롭힘	2	20.0
			기타	1	10.0
차별사례	0	0.00			
가출 혹은 실종	0	0.00			
관련정보문의	61	12.79			
기타	97	20.34			
계	793/477	166.71			

<표Ⅶ-2> 2007년도 상담 내용 *복수표기

상담 내용	명	(%)	소분류	명	(%)
성정체성	59	41.55			
짝사랑	27	19.01			
고백	14	9.86			
교제	42	29.58			
이별	23	16.20			
커밍아웃	5	3.52			
친구관계	24	16.90			
가족관계	14	9.86			
내면화된 혐오	20	14.08			
결혼 압력	1	0.70			
성	13	9.15			
우울증	13	9.15			
섭식장애	1	0.70			
종교	2	1.40	기독교	2	100.0
스토킹	2	1.40			
성폭력	4	2.80	동성 간 성폭력	3	75.00
			이성 간 성폭력	1	25.00
교제관계 내 폭력	5	3.52	가정 폭력	4	80.00
			데이트 폭력	1	20.00
기존 가족 내 폭력	1	0.70			
아우팅	5	3.52	고의적 아우팅	1	20.00
			무고의적 아우팅	1	20.00
			기타	3	60.00
아우팅 매개범죄	2	1.40	협박	1	50.00
			폭행	1	50.00
커뮤니티 내 폭력	5	3.52	폭행	4	80.00
			사기	1	20.00
혐오범죄	1	0.70	폭언	1	100.0
차별사례	0	0			
가출 혹은 실종	0	0			
관련정보문의	16	11.27			
기타	26	18.31			
계	320/142	228.80			

[통계 설명]

상담카드에서 상담내용의 분류는 복수 표기할 수 있게 하였기 때문에 총 1,113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교제문제를 비롯한 동성 파트너와의 관계와 관련한 상담이 355건으로 57.35%였으며, 자신의 성정체성에 대한 상담이 205건으로 33.12%를 차지하고 있다. 성폭력(이성간, 동성간)과 가정폭력(기존 가족 안의 폭력, 동성 파트너와 동거관계에서의 폭력), 스토킹, 아우팅(자신의 의도와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성정체성이 폭로되는 것)과 이를 매개로 한 협박과 폭력, 금품갈취 행위, 그리고 동성애자란 이유로 집단 따돌림이나 폭언 폭행을 당한 경우 등이 모두 110건이나 됐다. 또한 동성애, 레즈비언에 관련한 정보를 문의한 상담도 77건이었다.

[분석 평가]

2006년 4월부터 2007년 3월까지 상담 종류를 분석한 표(복수 표기)를 보면 성정체성 관련 상담이 33.12%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짝사랑, 고백, 교제, 이별' 즉 연애 관련 상담이 모두 합쳐 57.35%로, '스토킹, 성폭력, 기존가족 폭력, 교제관계 내 폭력, 아우팅, 아우팅 매개범죄, 레즈비언 커뮤니티 내 폭력, 혐오 범죄, 차별사례'와 같은 폭력 관련 상담 17.77%의 약 4배나 된다.

연애에 관련한 상담이나 수다는 대부분 가까운 친구들이나 지인과 대화로 풀게 되지만 레즈비언의 경우 지지집단 없이 고립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동성에게 이끌리는 감정을 털어놓을 곳이 극히 적다. 상담소를 통해 다른 이에게 이야기할 수 없었던 것들을 상대적으로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연애 관련 상담 비율이 높은 것이라 추측된다. 동성에게 느끼는 사소한 감정의 이끌림에서부터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교제해온 사람과의 이별까지 수많은 감정들과 갈등 등을 상담소에 털어놓음으로서 위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연애 관련 상담에 비해 차별 또는 폭력 관련 상담이 적은 이유는 실제로 레즈비언을 대상으로 한 폭력이나 차별이 적게 일어나기 때문이 아니라, 레즈비언 스스로 '동성애자 정체성을 가진 내가 그런 일을 당한다고 해도 어쩔 수 없다.'고 내면화하여 상담소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적기 때문이다. 또 연애와 관련된 문제는 레즈비언상담소이기에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 폭력적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도움을 상담소를 통해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상담을 요청하지 못하고 체념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상담소에 자신이 겪은 폭력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다시 털어놓음으로써 당시의 기억을 되살리는 과정에서 스스로 더욱 수치스러운 기분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상담을 요청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레즈비언들에게 차별 또는 폭력 상황이 적지 않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는 배경으로는 '우울증, 섭식장애'와 같은 증상으로 상담을 요청하는 사례가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우울증 관련 상담: 2006년 1월~3월 2.79% / 2006년 4월~12월 2.94% / 2007년 1월~3월 9.15%)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자신의 성정체성을 탐색하는 과정 자체가 힘들기도 하지만 폭력과 차별에 노출되어 스스로의 자긍심이 떨어지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겪는 차별과 폭력으로 인해 많은 동성애자들은 심한 우울증으로 극한 경우 자살을 시도하기도 한다. (미국의 경우 십대 자살인구의 30%가 동성애자 청소년이라는 연구가 있다. 1997년 매사추세츠 주에서 실시된 연구에 따르면 동성애자의 자살 시도 비율은 비동성애자 보다 여섯 배가 높다고 한다.[1]) 특히 한국사회와 같은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서 여성이기 때문에 받는 차별에 동성애자로서 또 한 번 차별을 받는 레즈비언들은 일상적인 차별과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레즈비언들은 우울증에 빠지거나 내면의 호모포비아로 인해 심각한 고통을 받게 된다. 따라서 폭력 관련 상담이 적은 이유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다만 드러나지 않는 것일 뿐이라고 할 수 있다.

1) 다니엘 헬미니악, 『성서가 말하는 동성애』. 해울. 머리말 중 인용

상담을 통해 본 레즈비언 권리 문제

Ⅰ. 유아/어린이 성폭력 피해와 레즈비언 경험

유아/어린이 성폭력 피해와 레즈비언 정체화는 결코 직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개인이 경험한 성폭력 피해가 그 사람의 성정체성 형성에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간과할 수 없는 현실도 있다. 바로, 자신이 레즈비언인가의 여부를 고민하는 상당수의 여성들이 유아/어린이 시절 이성의 상대로부터 입은 성폭력 피해를 자신의 성정체성 탐색 문제와 결부시켜 생각하며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레즈비언상담소> 상담팀은 상담소로 접수되는 성정체성 탐색 관련 내담에 담긴 내담자의 유아/어린이 성폭력 피해 경험에 주목하면서, 위와 같은 사실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었다. 또한 자신이 레즈비언이 된 게 유아/어린이 성폭력 피해 경험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내담자들이, 성폭력 피해 경험을 치유하고, 자신의 레즈비언 정체성 탐색 과정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레즈비언 관계를 잘 풀어나가는 등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 역시 알게 되었다.

성폭력 피해자로서 겪는 수치심과 동성애혐오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이들의 자긍심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할 때 중요한 것은, 성폭력 피해를 치유하는 작업과 동성애혐오를 줄여 나가는 작업을 병행하며 레즈비언 정체성 탐색을 긍정적으로 해 나갈 수 있게 돕는 것이다.

1. 내담 사례를 통해 살펴보기: 유아/어린이 성폭력 피해 후유증이 레즈비언 경험에 미치는 악영향

1.1 레즈비언 정체성 고민

① 남성 혐오와 정체성 고민: 남성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은 생각이 추호도 없는 것은 물론 남성과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는 것조차 견디기 어려워 사회생활이 힘들 정도라면서, 그렇듯 남성에 대한 혐오 때문에 자신이 레즈비언이 되어 가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 내담자.

② 자기 혐오와 정체성 고민: 어렸을 때 몸을 '망쳤기' 때문에 동성애자로밖에 살아가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내담자(동성애 혐오가 자기 혐오를 강화시키는 사례).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과 동성의 상대에게 끌린다는 사실이 모두 자신을 '정상적이지 못한' 존재로 만든다는 생각에 힘들다는 내담자.

1.2 인간 관계 자체에 대한 고민

① 자신의 존재 가치 의심: 자신이 무가치하게 느껴져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사람으로부터 사랑받을 자격이나 있는지, 그럴 희망이나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고백을 해 오는 내담자.

②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 상실: 아무도 믿을 수가 없어 누구와도 가까운 사이가 될 수 없다고 털어놓는 내담자.

1.3 성적인 접촉에 대한 고민

① 성관계에 대한 두려움: (동성) 애인을 깊이 사랑하고 있음에도 성적인 것에 대해 생각만 해도 고통스러워 성관계만은 도저히 가질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내담자.

② 성에 대한 혐오: 성폭력 피해가 떠올라 괴로우면서도 성욕을 느끼는 자기 스스로가 견딜 수 없이 힘들다는 내담자.

③ 성에 대한 무감각: (동성) 애인과의 관계에서 내가 성관계를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도 모르겠고, 성관계를 해도 아무런 느낌이 없는데, 의무감에 습관처럼 오히려 더 자주, 많이 성관계를 갖게 된다고

고백하는 내담자.

2. <한국레즈비언상담소>의 상담 방향

2-1. 성폭력 피해의 치유를 돕는다.
① 성폭력 피해의 고통에 최대한 공감하는 태도를 보여 준다.
② 생존자인 내담자를 격려하고 지지하는 말을 아끼지 않는다.
③ 성폭력 피해로 인한 수치심, 자괴감, 박탈감 등의 감정을 치유할 수 있도록 상처 입은 자아와 직면하여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을 다각도로 제시한다.

2-2. 레즈비언 정체성 탐색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① 레즈비언 정체화의 핵심은 남성 혐오라기보다 여성에 대한 이끌림이라는 점을 알려 준다.
② 여성이 여성에게 느끼는 감정적, 사회적, 성적 이끌림은 있는 그대로 존중받아야 마땅한 일임을 강조한다.
③ 자신이 레즈비언이라는 혹은 레즈비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자책하거나 자괴감을 느끼지 않아도 괜찮다는 이야기를 반드시 덧붙인다.
④ 레즈비언 정체성 탐색 과정에서 느끼는 두려움, 거부감, 이중적 소외 등의 부담 등을 덜어 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역할 모델이 될 만한 사례들을 소개한다.

2-3. 새로운 관계 맺기를 모색할 수 있도록 돕는다.
① 타인에 대해 신뢰하기 어렵게 된 내담자의 입장에 전적으로 공감해 준다.
② 새로운 관계들을 모색해 나가는 과정에서 조금씩 대인관계 자체에 대한 신뢰 회복이 가능하다는 점을 설득한다.
③ 관계 속에서 무력해지지 않을 수 있는 내담자만의 방식을 찾아나가도록 독려한다.
④ 교제 관계 안에서 충분한 대화를 통해 신뢰 관계를 쌓아나가도록 격려한다.

2-4.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
① 성적인 접촉이 바로 폭력적인 것으로 인식 될 수 있는 내담자의 입장에 공감한다.
② 자기감정과 욕구에 솔직하게 행동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점을 알려준다(싫으면 싫다/좋으면 좋다).
③ 자신이 변덕스러워 질 수 있고, 그래도 괜찮다는 것을 알려준다.
④ 성을 매개로 편안하고 즐거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분명히 존재함을 언급한다.
⑤ 성적인 접촉에 대한 자신의 느낌과 감정을 교제 관계 안에서의 솔직한 대화를 통해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상대방과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권유한다.

3. 앞으로의 과제들

3-1. 유아/어린이 성폭력 피해 치유 및 피해자 지원과 관련하여 <한국레즈비언상담소>의 전문성 제고한다. 성폭력 전문 상담 단체의 교육을 이수하거나, 해당 단체와 연대 세미나를 운영하는 방식 등을 고민해 볼 수 있다.
3-2. 성폭력 전문 상담 단체와의 상시적인 연계망을 구축한다.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상담소로 찾아온 내담자를 다각도로 지원할 수 있기 위해 이러한 연계망 구축은 필수적이다.
3-3. 성폭력 피해와 레즈비언 정체성이 여성의 자긍심 약화로 이어지는 현실에 대한 엄밀한 진단을 통해, 여성들이 자긍심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피해를 치유하고 정체화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꾸준히 모색

한다.

3-4. 남성으로부터의 성폭력 피해 경험은 긍정적인 레즈비언 정체성 탐색을 막고, 레즈비언의 자긍심을 훼손시키는 중요한 요인이지 레즈비언 정체성 형성의 원인이 결코 아니라는 점을 알려 낸다.

Ⅱ. 커뮤니티 내 아우팅 매개 범죄

아우팅이란 동성애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혹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 의해 성정체성을 폭로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아우팅은 동성애자 스스로 커밍아웃할 수 있는 자율성을 차단한다는 점에서 일차적인 문제가 있지만, 나아가 동성애자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큰 문제가 있다.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의 정체성이 폭로되는 것으로 인해, 동성애자들은 직장, 학교, 가정 등에서 내몰리고 친구나 동료들에게는 따돌림과 괴롭힘 피해를 입는다.

이처럼 동성애자에게 성정체성이 노출되는 것이 삶의 뿌리를 흔들 수 있는 두려운 사건이라는 것을 아는 몇몇 사람들은, "성정체성을 알려 버리겠다."는 식의 협박을 통해 금품 갈취, 폭행, 성폭력 등의 범죄를 저지르기도 한다. 이를 아우팅 매개 범죄라 한다.

특히 최근 한국레즈비언상담소의 상담사례를 통해 보면, 레즈비언 커뮤니티 내부에서 아우팅 매개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많이 보고되었다. 즉 이성애자 등 비(非)레즈비언이 레즈비언을 향해 아우팅 협박과 그를 매개로 한 폭력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커뮤니티 내부에서 레즈비언이 레즈비언에게 아우팅 매개범죄를 가하는 것이다.

1. 내담을 통해 보고되는 커뮤니티 내 아우팅 매개 범죄

1-1. 헤어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전 애인에게 아우팅 매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헤어지려고 하는 애인에게 '나랑 헤어지면 아우팅 시키겠다'고 협박.

헤어진 애인에게 '나랑 다시 사귀지 않으면 아우팅 시키겠다'고 협박.

다시 사귀자는 등의 명확한 요구 사항은 없으나, 헤어진 애인에게 남아 있는 분한 마음으로 아우팅 협박을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

헤어진 애인과의 사이에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재산관계가 있거나 혹은 자신에게 불리한 쪽으로 정리되었다고 생각할 때, 전 애인에게 아우팅 협박을 통해 금품을 갈취.

1-2. 레즈비언 간 갈등이 아우팅 매개 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

레즈비언 간 작은 다툼이나 갈등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아우팅 시키겠다'는 협박으로 이어진다.

다툼이 일었던 상대를 향한 분한 마음 때문에, 상대에게 아우팅 협박을 통해 지속적인 괴로움을 주고자 한다.

1-3. 금품 갈취 등 애초에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아우팅 매개 폭력을 휘두르는 경우

레즈비언 커뮤니티 내부에서 상습적으로 아우팅 매개 범죄를 통해 금품 갈취, 성폭력 등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2. 아우팅 매개 범죄의 발생 배경 분석

2-1. 레즈비언의 취약한 사회적 위치

많은 레즈비언들이 정체성이 드러나서는 안 되는 상황에 있다. 레즈비언 커뮤니티에 참여한다는 것은, 레즈비언을 향한 올바른 정보를 접할 기회도 많고 자신의 정체성을 어느 정도 긍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레즈비언 커뮤니티 밖으로 벗어나면, 이성애자인 척 가장하고 살 수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레즈비언 정체성을 알리고 나서 올 수 있는 지인들과의 관계 변화, 해고, 퇴학 등의 피해가 두

렵기 때문이다.

이처럼 레즈비언 존재 자체가 드러낼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보니, 레즈비언은 범죄 노출에 있어 취약 집단일 수밖에 없다.

2-2. 커뮤니티 내 개인정보 악용

레즈비언 커뮤니티는 대부분 온라인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익명성을 보장한다. 레즈비언들이 자신의 존재가 알려지는 것에 대해 일차적으로 두려움을 갖기 때문에, 레즈비언 커뮤니티는 자연스럽게 일정 정도의 익명성을 추구해 왔다.

하지만 커뮤니티의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자신을 긍정하며 다른 레즈비언과 교류하려는 레즈비언의 욕구가 확대되면서 익명성의 한계를 뛰어넘고자 하는 시도들이 존재한다. 레즈비언들은 다니고 있는 학교, 직장, 사는 지역 등을 공개하거나 게시물에 자신의 연락처를 남기고 사진을 올리기도 한다.

커뮤니티 내에서의 이러한 활동은 레즈비언의 자연스러운 욕구에 바탕을 두고 있고, 최소한 레즈비언 사이에서 자신을 알리고 개방하는 것은 자기 긍정에 큰 도움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어디에나 상대의 약점이나 불안전한 상황을 노리는 범죄들이 있는 것처럼, 레즈비언 커뮤니티에서도 개인 정보의 노출을 악용해 아우팅 매개 범죄가 일어나는 것이다.

2-3. 조력자, 지지집단의 부족

레즈비언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을 때, 갈등을 원만하게 풀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나 지지집단은 매우 부족하다. 가족은 물론이거니와 커밍아웃한 친구들이 없는 레즈비언도 많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갈등 당사자는 대화 등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알기 어렵다. 때문에 아우팅 매개 폭력을 가함으로서 '손쉽게' 문제를 해결하려는 유혹에 노출된다.

3. 아우팅 매개 범죄 피해자의 취약성

3-1. 가해자에 대한 중한 처벌이 어려움.

동성애자의 삶의 뿌리 자체를 뒤흔드는 아우팅을 매개로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고려 없이, 아우팅 매개 범죄는 기존의 다른 범죄와 같은 수준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가해자에게 경한 처벌이 이루어진다면, 형사 절차 상에서 커밍아웃을 해야 하는 등의 부담을 지면서 신고를 하느니 차라리 포기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한다.

3-2. 형사 절차 중, 커밍아웃으로 인해 겪게 되는 2차, 3차 피해.

레즈비언 정체성을 밝히면 경찰으로부터 욕을 듣거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질문에 대답하기를 강요받는 등의 2차, 3차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다. 피해 사실이 언론에 유출되거나 정체성이 가족, 지인들에게 알려지지는 않을까 하는 점 역시, 레즈비언이 신고를 꺼리는 이유이다.

가해자에 대한 인권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역시 문제이다. 가해자가 사건 경위와는 상관없는 레즈비언 정체성 관련 질문을 받거나 모욕적인 말을 듣는 경우가 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걱정하는 것이 아이러니하기는 하지만, 피해자는 가해자가 레즈비언 정체성을 매개로 부당한 수사를 겪게 될 것이라는 점이 예상되어 신고를 꺼리기도 한다.

3-3. 조력자, 지지집단의 부족.

고소장을 쓰고 경찰서에 가는 등의 상황은 누구에게나 겁이 나는 일일 수 있다. 특히 레즈비언의 경우, 자신의 정체성을 밝혀야 하기 때문에 무척 두렵고 괴로운 일이다. 많은 레즈비언들이 커뮤니티 밖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공공연하게 밝힐 수 없는 채 살아가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경찰, 검찰 등에 공적

으로 커밍아웃을 하는 일이 무척 힘이 들 수 있다. 때문에 조력자, 지지집단이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에서의 지원은 전무하고 동성애자 인권단체의 수도 매우 적어, 현실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지지는 매우 미약하다고 볼 수 있다.

4. 아우팅 매개 범죄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사회적 장치

4-1. 아우팅 매개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프랑스는 2005년부터 동성애 혐오 불법화 법안을 시행하여, 성정체성을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차별, 증오, 폭력 등을 선동했을 때 처벌을 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경우 성별, 장애, 인종, 성정체성 등에 대한 혐오와 편견을 기반으로 한 범죄를 혐오범죄(Hate Crime)로 따로 분류하고 있다. 혐오범죄에 대한 체계적인 통계를 내고 있으며, 혐오범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가한다.

아우팅은 동성애자의 삶의 기반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범죄이다. 또한 아우팅을 매개로 한 협박 등의 폭력은 동성애자의 취약한 위치를 악의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그 죄질을 단순 협박 등의 폭력과 동일하게 보고 경한 범죄로 다루어서는 곤란하다. 소수자 집단에 대한 범죄를 악질인 것으로 보며 중한 처벌을 가한다면, 소수자에 대한 폭력이 잦아들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평등 의식과 인권 의식이 확산될 것이다. 한국도 아우팅 매개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이 필요하다.

4-2. 검·경찰의 편견과 혐오 시정

경찰과 검찰이 동성애자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범죄와 관련 없는 질문을 하는 것, 혐오적인 말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동을 하는 것 등은 즉각 시정되어야 한다. 또한 동성애자에게 아우팅이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수사 중 가족이나 언론 등에 정체성이 알려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 검, 경찰에서 동성애 바로 알기 강좌 등을 실시하는 것도 좋겠다. 혐오와 편견 없는 공정한 수사가 필요하다.

4-3. 레즈비언 커뮤니티의 의식 향상 필요

레즈비언 커뮤니티에서 인권 의식이 향상되는 것도 꼭 필요한 일이다. 같은 레즈비언이기 때문에 알 수 있는 서로의 취약한 위치를, 범죄로 악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현재 한국레즈비언상담소에서는 <무지개빛 이반 세상 만들기> 캠페인을 통해, 레즈비언 커뮤니티 내 범죄 예방에 힘쓰고 있다.

Ⅲ. 가족구성권

현재 우리나라에 동성간 커플의 관계를 어떤 형태로든 인정해 주는 법적 조항은 전무하다. 이는 뿌리 깊은 유교적 가치관과 기독교적 가치관이 지배적인 우리 사회에서, 동성애자의 권리에 대한 논의를 꺼내는 것조차 꺼리는 분위기 탓이 크다. 하지만 동반자 관계를 원하는 동성애자에게도 이성애자와 같이 가족을 구성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실제로 지난 해 한국레즈비언상담소에 접수된 상담들 중 상당수가 레즈비언 커플 관계의 법적 보호와 입양 권리에 관한 문의였다.

최근 다른 국가들에서는 동성애자 가족 구성권을 인정하는 법적 조항을 제정하는 추세를 보인다. 정식 혼인 관계는 아니기에 입양 등의 제약이 있는 파트너십(프랑스, 독일 등)과 동성 결혼 합법화(네덜란드, 캐나다 등)가 그것이다. 내담자들 중에는 다른 나라의 가족 구성권 정보를 접한 후, 국내법상의 동성애자 가족 구성권에 대해 문의하는 경우가 많았다.

1. 내담을 통해 보고되는 가족 구성권에 대한 관심

1-1 동성 결혼, 파트너십이 인정되지 않는 우리나라 제도에 대한 불합리함을 토로.

동성애자 커플은 정서적 경제적 공유 관계를 맺고 산다고 해도 가족을 인정받지 못한다.

A씨는 함께 살던 동성 애인이 직장 문제로 다른 곳으로 가야 했지만, 두 사람의 관계를 인정받지 못해 함께 전근하지 못하고 헤어져야만 했다. B씨는 동성 애인과 오랫동안 함께 살았지만, 자신들을 묶어줄 수 있는 어떤 법적 장치도 없다는 생각 때문에 두려워한다.

1-2 사실혼 관계에 대한 문의, 재산 분할에 관한 문의

2006-2007년 상담 통계를 살펴보면, 내담자들은 법적으로 동성혼이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해도 사실혼 관계만은 증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를 해 오기도 했다. 동성애자 커플은 헤어질 때 재산 분할 때 문제를 겪어도 혼인 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법의 도움을 받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1-3 입양에 대한 문의.

내담자들은 외국에서 동성애자가 아이를 입양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정보를 들은 후,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한지 묻는 경우가 많았다. 세계적으로 동성 커플을 법적 제도들이 마련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동성애자들이 국내법의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는 동향으로도 볼 수 있겠다.

2. 배경 분석

2-1. 가족 제도와 관련한 레즈비언의 사회적 위치

이성애 결혼제도는 여성과 남성의 결합만을 인정하고, 이를 사회적 기본 단위를 구성하고 있다. 그 외의 다른 모든 관계들에게 배타적인 태도를 취한다. 이에 따라 동성애자 가족들은 어떠한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하게 되며, 사회적으로 매우 취약한 위치에 놓인다. 가족을 꾸리고 사는 동성애자들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제도 전무한 것이다. 특히 독신 여성이 남성에 비해 사회적으로 더 불리한 위치라는 점을 염두에 둘 때, 레즈비언의 삶이 상대적으로 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

2-2. 보건복지부의 독신입양 허용 발표 뒤, 동성애자의 입양 가능성에 대한 희망

보건복지부는 지난 해 7월 18일자 보도 자료를 통해, “가족형태가 다양화됨에 따라 독신자 가정의 비

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독신가정의 입양수요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힌 뒤, "이러한 추세를 감안하여 독신자 가정도 입양이 가능하도록 지금까지의 제한규정을 삭제"한다고 공고했다. 이로써 독신자들의 입양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 공고가 알려지면서, 한동안 독신자 입양 정보에 대한 문의가 쇄도했다.

3. 가족 제도와 관련한 동성애자 운동 진영의 담론들

3-1. 동성결혼을 둘러싼 논의들

현재 국가에서는 자녀를 둔 이성애자 가족에게만 혜택을 주는 제도를 만들며, 동성애자 가족이 이성애자 가족과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을 애초부터 박탈하고 있다. 이렇게 이성애자 가족 형성을 강요하는 사회에서,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논의를 부각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물론, 호주제 폐지 이후 우리 사회에서는 '다양한 가족'에 대한 담론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이성애자를 중심으로 한 논의에 그칠 때가 많기에, 동성애자 가족에 대한 전면적인 논의는 턱없이 부족하다. 더군다나 최근 '저출산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면서, 가족 구성권 논의는 결혼과 출산으로만 치우쳐지고 있다.

'결혼 강요하는 사회'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많은 동성애자 운동 진영에서는, 동성애자의 가족 구성권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내고 있다. 동성 결혼을 전면 합법화를 요구하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결혼 제도에 무조건적인 편입을 반대하는 논의도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 한국레즈비언상담소도 논의와 고민을 지속해 나가며, 동성애자 가족구성권에 대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3-2. 국가 정책과 관련한 논의들

동성혼은 동성애자 인권과 동성애자 가족 구성권 문제에서 가장 절실한 문제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다. 법적 조건인 동성결혼이 실용화되기 위해서는 동성애자를 둘러싼 사회적 환경이 변화되어야 한다. 동성혼 합법화 문제는 무엇보다도 동성애자의 인권 보호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동성애자 가족 구성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주위에서 동성애자임을 쉽게 알 수 있다면, 법적 제도의 이용은 절대 쉽지 않을 것이다. 커밍아웃을 하기 힘든 우리 사회에서, 동성애자 개인이 공문서로 자신의 성정체성을 드러내는 일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일례로 동성 파트너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준다고 했을 때, 의료보험증에 동성애자임이 드러난다면 이를 이용할 수 있는 동성애자는 거의 없을 것이다.

이런 까닭으로, 국가정책은 법의 실행만을 앞세우기 보다는, 제반 여건을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레즈비언 인권 실태 조사나 증언 수집 등은 매우 유의미한 작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동성애자 가족 구성권 논의에서는 동성 커플의 파트너십, 입양문제, 결혼전면합법화, 공동체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야 하는데, 동성애자 본인들의 의견이 직접 반영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2006 - 2007, 한국레즈비언상담소 상담 통계 표

2006년도 : 4월-12월 / 2007년도 : 1월-3월

<표 I > 상담 방법

<표 I -1> 2006년도 상담 방법

상담 방법	명	(%)
전화	67	14.05
이메일	159	33.33
게시판	244	51.15
내방	4	0.84
기타	3	0.63
계	477	100

<표 I -2> 2007년도 상담 방법

상담 방법	명	(%)
전화	21	14.79
이메일	33	23.24
게시판	87	61.27
내방	1	0.70
기타	0	0
계	142	100

<표 II > 내담자 성별

<표 II -1> 2006년도 내담자 성별

성별	명	(%)
여	435	91.19
남	31	6.50
F to M	1	0.21
M to F	1	0.21
알 수 없음	9	1.89
계	477	100

<표 II -2> 2007년도 내담자 성별

성별	명	(%)
여	133	93.67
남	7	4.93
F to M	1	0.70
M to F	0	0
알 수 없음	1	0.70
계	142	100

<표III> 내담자 성정체성

<표III-1> 2006년도 내담자 성정체성

성정체성	명	(%)
레즈비언	219	45.91
게이	3	0.63
양성애자	16	3.35
이성애자	31	6.50
고민 중	166	34.80
알 수 없음	42	8.81
계	477	100

<표III-2> 2007년도 내담자 성정체성

성정체성	명	(%)
레즈비언	70	49.30
게이	0	0
양성애자	1	0.70
이성애자	11	7.75
고민 중	45	31.69
알 수 없음	15	10.56
계	142	100

<표IV> 내담자 나이

<표IV-1> 2006년도 내담자 나이

나이	명	(%)
10대	115	24.11
20대	113	23.69
30대	42	8.81
4-50대	19	3.98
알 수 없음	188	39.41
계	477	100

<표IV-2> 2007년도 내담자 나이

나이	명	(%)
10대	48	33.80
20대	51	35.92
30대	8	5.63
4-50대	11	7.75
알 수 없음	24	16.90
계	142	100

<표V> 내담자 혼인여부

<표V-1> 2006년도 내담자 혼인여부

혼인여부	명	(%)
비혼	275	57.65
기혼	27	5.66
이혼	1	0.21
알 수 없음	174	36.48
계	477	100

<표V-2> 2007년도 내담자 혼인여부

혼인여부	명	(%)
비혼	109	76.76
기혼	13	9.16
이혼	2	1.40
알 수 없음	18	12.68
계	142	100

<표VI> 내담자 정체화 여부

<표VI-1> 2006년도 내담자 정체화 여부

정체화 여부	명	(%)
함	199	41.72
하지 않음/못함	140	29.35
알 수 없음	138	28.93
계	477	100

<표VI-2> 2007년도 내담자 정체화 여부

성별	명	(%)
함	64	45.07
하지 않음/못함	49	34.51
알 수 없음	29	20.42
계	142	100

<표Ⅶ> 상담 내용

<표Ⅶ-1> 2006년도 상담 내용 *복수표기

상담 내용	명	(%)	소분류	명	(%)
성정체성	146	30.61			
짝사랑	68	14.26			
고백	14	2.94			
교제	112	23.90			
이별	55	11.53			
커밍아웃	11	2.31			
친구관계	44	9.22			
가족관계	47	9.85			
성	32	6.71			
우울증	14	2.94			
섭십장애	2	0.40			
종교	5	1.05	기독교	4	80.00
			기타	1	20.00
스토킹	4	0.84			
성폭력	14	2.94	동성 간 성폭력	3	21.43
			이성 간 성폭력	11	78.57
교제관계 내 폭력	13	2.73	가정 폭력	5	38.46
			데이트 폭력	8	61.54
기존 가족 내 폭력	8	1,68			
아우팅	15	3.14	고의적 아우팅	5	33.33
			무고의적 아우팅	1	36.67
			기타	9	60.00
아우팅 매개범죄	13	2.73	협박	10	76.93
			폭행	1	6.67
			금품갈취	1	6.67
			기타	1	6.67
커뮤니티 내 폭력	8	1.68	사기	2	25.0
			명예훼손	2	25.0
			기타	4	50.0
혐오범죄	10	2.10	폭언	1	10.0
			폭행	1	10.0
			따돌림	5	50.0
			괴롭힘	2	20.0
			기타	1	10.0
차별사례	0	0.00			
가출 혹은 실종	0	0.00			
관련정보문의	61	12.79			
기타	97	20.34			
계	793/477	166.71			

<표Ⅶ-2> 2007년도 상담 내용 *복수표기

상담 내용	명	(%)	소분류	명	(%)
성정체성	59	41.55			
짝사랑	27	19.01			
고백	14	9.86			
교제	42	29.58			
이별	23	16.20			
커밍아웃	5	3.52			
친구관계	24	16.90			
가족관계	14	9.86			
내면화된 혐오	20	14.08			
결혼 압력	1	0.70			
성	13	9.15			
우울증	13	9.15			
섭식장애	1	0.70			
종교	2	1.40	기독교	2	100.0
스토킹	2	1.40			
성폭력	4	2.80	동성 간 성폭력	3	75.00
			이성 간 성폭력	1	25.00
교제관계 내 폭력	5	3.52	가정 폭력	4	80.00
			데이트 폭력	1	20.00
기존 가족 내 폭력	1	0.70			
아우팅	5	3.52	고의적 아우팅	1	20.00
			무고의적 아우팅	1	20.00
			기타	3	60.00
아우팅 매개범죄	2	1.40	협박	1	50.00
			폭행	1	50.00
커뮤니티 내 폭력	5	3.52	폭행	4	80.00
			사기	1	20.00
혐오범죄	1	0.70	폭언	1	100.0
차별사례	0	0			
가출 혹은 실종	0	0			
관련정보문의	16	11.27			
기타	26	18.31			
계	320/142	228.80			

[첨부자료] 2006, 2007 상담카드

<한국레즈비언상담소> 2006년도 상담카드

1. 카드 정보

일련번호: 06(연)- (월)- (일)- (차)	고유번호: ( )차	상담원:
상담방법: □ 전화 □ 이메일 □ 게시판 □내방 □ 기타	상담일시: 년 월 일 요일 오전·오후 시 분~ 시 분	소요시간:

2. 내담자 정보

이름	닉네임: , 실명:		
성별	□ 여성 □ 남성 □ F to M 트랜스젠더 □ M to F 트랜스젠더 □ 기타		
성정체성	□ 레즈비언 □ 게이 □ 양성애자 □ 이성애자 □ 기타(예: 고민 중)		
나이	( )세 *비고 □ 10대 □ 20대 □ 30대 □ 40-50대 □ 기타		
직업:		지역:	혼인여부: □ 비혼 □ 기혼 □ 이혼
연락처	전화번호: , E-Mail주소:		

* 대리내담자(있을 경우)

이름	닉네임: , 실명:	
내담자와의 관계:		지역:
성별	□ 여성 □ 남성 (□ F to M 트랜스젠더 □ M to F 트랜스젠더)	
성정체성	□ 레즈비언 □ 게이 □ 양성애자 □ 이성애자 □ 기타(예: 고민 중)	
나이	( )세 *비고 □ 10대 □ 20대 □ 30대 □ 40-50대 □ 기타	
연락처	전화번호: , E-Mail주소:	

3. 내담자 상태

정체화: □ 한 상태 □ 안 한/못 한 상태	(정체화한 경우) 커밍아웃: □ 안함 / □ 함 (대상_복수 표기 가능 : □ 자매형제 □ 친구 □ 부모 □ 동료 □레즈비언 커뮤니티 □ 기타)	레즈비언커뮤니티경험유무: □ 있음 □ 없음

4. 상담 종류(복수 표기 가능)

□ 성정체성	□ 커밍아웃	□ 가족관계	□ 친구관계	□ 교제	□ 고백	□ 짝사랑	□ 이별
□ 종교 (비고: □ 기독교 □ 불교 □ 천주교 □ 이슬람교 □ 기타 종교 □ 무교)							
□ 성폭력 (비고: □ 동성간성폭력 □ 이성간성폭력 □ 기타)							
□ 기존 가족 내의 폭력				□ 교제 관계 내의 폭력 (비고: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 스토킹	□ 아우팅 (비고: □고의적 아우팅 □무고의적 아우팅 □기타)			□ 레즈비언 커뮤니티 내 폭력 (비고: □ 사기 □ 금품 갈취 □ 명예 훼손 □ 폭행 □ 기타)			
□ 아우팅매개범죄 (비고: □ 협박 □ 금품갈취 □ 폭행 □ 성폭력 □ 기타)				□ (성소수자 당사자의)가출 혹은 실종			
□ 혐오범죄 (비고: □ 협박 □ 폭언 □ 폭행 □ 혐오상징물게시 □ 성폭력 □ 따돌림 □ 괴롭힘 □ 기타)							
□ 차별사례 (비고: □ 교육 □ 노동 □ 형사절차 □ 법/제도 □ 재화/용역 □ 기타)							
□성(性)	□우울증	□섭식장애	□관련정보문의	□기타			

5. 상담소를 알게 된 경로: □ 인터넷 □ 신문 및 잡지 □ 지인 소개 □ 기타

상담일지

일련번호: 06(연)- (월)- (일)- (차)	고유번호: ( )차	상담원:
상담방법: ☐ 전화 ☐ 이메일 ☐게시판 ☐내방 ☐ 기타	상담일시: 년 월 일 요일 오전·오후 시 분~ 시 분	소요시간:

내담내용
상담내용
후속조치
기타

<한국레즈비언상담소> 2007년도 상담카드

1. 카드 정보

일련번호: 07(연) (월) (일) (차)	고유번호: ( ) 차	상담원:
상담방법: □전화 □이메일 □게시판 □내방 □기타	상담일시: 2007년 월 일 요일 오전/오후 시 분~ 시 분	소요시간:

2. 내담자 정보

이름	닉네임: 실명:				
성별	□여성 □남성 □F to M 트랜스젠더 □M to F 트랜스젠더 □기타				
성정체성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이성애자 □고민중 □기타				
나이	( )세 □10대 □20대 □30대 □4-50대 □기타				
혼인여부	(이성과의 혼인여부를 말함) □결혼 안함 □결혼함 □이혼함				
직업		지역		이메일	

3. 내담자 상태

정 체 화 : □한 상태 □안 한/못 한 상태	레즈비언 커뮤니티 경험 유무 : □있음 □없음

4. 상담 종류(복수 표기 가능)

□ 성정체성	□ 짝사랑	□ 고백	□ 교제	□ 이별
□ 커밍아웃	□ 친구관계		□ 가족관계	
□ (성소수자 당사자의) 내면화된 동성애혐오증		□ 결혼압력		
□ 성(性)	□ 우울증		□ 섭식장애	
□ 종교 *비고 □기독교 □불교 □천주교 □기타( ) □ 종교 없음				
□ 스토킹	□ 성폭력 *비고 □동성간성폭력 □이성간성폭력 □기타			
□ 기존 가족 내의 폭력	□ 교제 관계 내의 폭력 *비고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 아우팅 *비고 □고의적 아우팅 □무고의적 아우팅 □기타				
□ 아우팅매개범죄 *비고 범죄 유형 :				
□ 레즈비언 커뮤니티 내 폭력 *비고 폭력 유형 :				
□ 혐오범죄 *비고 범죄 유형 :				
□ 차별사례 *비고 차별 유형 :				
□ (성소수자 당사자의) 가출 혹은 실종	□ 관련정보문의		□ 기타	

5. 상담소를 알게 된 경로 □인터넷 검색 □레즈비언 커뮤니티 □신문 및 잡지 □지인 소개 □기타

상담일지

일련번호: 07(연) (월) (일) (차)	고유번호: ( ) 차	상담원:
상담방법: □전화 □이메일 □게시판 □내방 □기타	상담일시: 2007년 월 일 요일 오전/오후 시 분~ 시 분	소요시간:

내담내용
상담내용
후속조치
기타